



3면

"선도경제 중심에 벤처... 4대 벤처강국 도약"

# 전주매일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음 7월 20일) 제285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열린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참석 한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송하진 지사, 15대 회장 연임 선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내년 1월 시행 중앙지방 협력회의 등 고견 모아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의료인력 확충 성명서 채택 공공병원 대폭 신설·증설 전공의 수련 기반 강화 요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역사상 협의회장이 연임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현재 14대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송하진 회장은 내년 6월까지 1년여 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송하진 회장과 함께,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 갈 2명의 부회장은 이재

명 경기도지사가 연임을 확정했고, 박영준 부산시장이 새롭게 지명됐다. 감사 역시 14대에 이어, 허태정 대전 시장이 맡게 된다. 지난 1999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출범 이후 협의회장이 연임한 사례는 송하진 회장이 최초다. 송하진 회장은 지난해 8월 역대 전북 도지사 중 최초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됐고, 올해에는 역대 회장으로는 최초의 연임 회장이 되면서 보기 드문 기록을 남기게 됐다. 신임 회장 선출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로, 송하진 회장을 책임자로 판단해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중지를 모았다. 제15대 송하진 회장은 "지방분권 개헌,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 지방 자치권 확대,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무거운 자리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20대 대선 대비 지방분권 정책공약 과제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전면개정 지방자치법과 함께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앙 지방협력회의, 진정한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고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역공공 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대폭 신설·증설해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 개선할 것,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국·공립 의과대학을 조속히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지역 간호사제 및 공공임상교수제를 즉각 도입하며, 지방의료원의 전공의 수련 기반을 강화하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들은 우리나라가 137년 만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등록 엑스포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제15대 회장으로 연임된 송하진 회장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와 각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 송하진 회장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질적 재정분권, 통합적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소회를 밝히고 동시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에 관한 비전이나 사회적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송하진 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17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선출되는 제15대 임원들이 중심이 돼 협의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시도지사들에게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발전방안 모색

전북도, 올해 두번째 공공기관 상생협의회

국민연금 '대체에너지 활용 지역공동체 사업' 농진청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등 추진상황 교류 도, 투어매니저 지원 등 지역 특색 관광 시책 홍보

전북도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우병기 정무부지사 주재로 전주시, 완주군, 전북도교육청, 13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협의회(순회 간담회 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혁신도시 공공기관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소통채널로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 이전공공기관(13개 기관) 등 기관별 부기관장이 참여한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개최해 이전기관과 연계한 전북지역의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회의 후에는 전북테크비즈센터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투어 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참석 기관들은 기관별 대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혁신도시의 발전방안 협력사항 등을 심도있게 다뤘다. 국민연금공단의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과 같은 지역상생 사업부터 농촌진흥청의 '2021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등 각 기관별 추진상황을 교류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동 조성중인 '혁신도시 어린이 가족친화 공간조성 사업' 같은 정주여건 개선 사업도 공유했다. 특히, 도는 유니크메뉴 시설에서 행사 개최시 인센티브 지원, 전북 투어매니저 지원 등 전북민의 특색있는 관광 시책을 알리며, 공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우병기 도 정무부지사는 "오늘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그리고 반딧불이  
여기가 무주네!

muju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